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은
무궁토록 번영할것이다

정일봉



조선

주체111
(2022) 2

(787)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CONTENTS

표 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 사진 변찬우
뒤표지: 수도의 밤하늘에 축포가 오른다 사진 리명국
편집: 신재철, 김정철, 김규성, 승 룡, 최일선

특별소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할것을 결정.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여야 한다고 인정,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과 국가의 당면사업과 중요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1월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8기 제6차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치국회의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10돐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력사적인 올해의 태양절과 광명성절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당의 령도따라 끝까지 계승완성하려는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더욱 억척같이 다지고 주체110년대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는 승리자의 년대로 빛내이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열의와 혁명적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계기로 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10돐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돐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당과 국가기관들의 임무를 상세하게 포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으로 현 조선반도주변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보고를 청취하고 금후 대미대응방향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데 대한 자료가 통보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후 공화국이 조선반도정세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이 더이상 묵과할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

정치국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대조선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하였으며 공화국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였다.



주체적국방공업령도사에 아로새긴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공적 또다시 만천하에 과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핵심5대과업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무기개발부문에서 대성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부문앞에 극초음속미싸일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제시하였으며 당중앙은 당대회과업관철을 위하여 극초음속무기체계개발의 전 과정을 강력히 인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발사에 앞서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속미싸일무기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청취하시였다.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특성들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려명이 밝아올무렵 총비서동지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새벽의 고요와 미명의 장막을 밀어내며 주체무기의 발사폭음이 천지를 뒤흔들고 화광이 충천한 속에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솟구쳐올랐다.

발사된 미싸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재도약을 하면서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방위각에로 240㎞의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 000㎞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하였다.

최종시험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뛰여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핵심5대과업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무기개발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미싸일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과 해당 당조직들의 실천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국방발전정책과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성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들을 쟁취해야 한다고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날 극초음속무기연구개발부문의 핵심성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부르시여 뜨겁게 축하해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예정지를 현지에서 료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이 일떠서게 될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지구 건설예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이미전부터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리일대에서는 대규모남새온실농장 건설준비사업이 추진되여왔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08(2019)년 4월 몸소 현지를 답사하시며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지구에 건설한 온실농장보다 더 방대한 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련포지구에 일떠세움으로써 함경남도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할 구상을 펼치시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련포지구 대규모남새온실농장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설계사업을 지도해오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지에서 먼저 련포남새온실농장건설총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청취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온실농장건설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한 인민군부대들에 또다시 새로운 대규모온실농장건설을 맡기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대 장병들은 당의 구상과 정책의 철저한 집행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답게 숭고한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여 우리 당의 숙원사업을 하루빨리 관철하기 위한 충성의 총돌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온실농장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각 부문별로 분과들을 내오는 문제,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고 건설자재보장과 온실설비제작을 선행하며 시공지도와 건설감독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방풍림조성과 원림록화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등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와 함께 온실농장을 다음해부터 운영할수 있게 기술자, 종업원선발교육을 따라세우며 남새종자보장과 농기계, 영농물자확보를 동시에 내밀어 하루빨리 인민들의 식생활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장, 당의 온실농장건설정책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만점짜리로 일떠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고있는 군수공장을 현지에서 지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고있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군수공장의 혁명사적교양실과 여러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책임일군들로부터 공장이 최근에 이룩한 기술 및 생산공정현대화정형과 현행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결정집행을 위해 중요무기생산에서 집단적혁신과 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무력의 현대화와 나라의 국방발전전략실현에서 공장이 맡고있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국방공업의 현대성을 상징하는 본보기공장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과 군검수원들이 당의 혁명위업을 강위력한 첨단무장으로 옹위해나갈 일념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군수생산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해온 자랑스러운 우리 국방공업의 전통과 력사를 이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군수정책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80돐 1942-202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맞는 2월이 왔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전체 조선인민은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 드리고있다.

본사편집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는것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한생을 보여주는 화폭의 일부를 화보에 담는다.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어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력사의 준엄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사회주의조선을 존엄높은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력사의 필연이다.

그러나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 그 승리는 오직 탁월한 수령을 모신 인민만이 쟁취할수 있는 값높은 영예이고 긍지이다.

조선은 20세기중엽부터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가장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여왔다.

사회주의조선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렬강들의 압살공세는 사상 최대였으나 조선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기에 추호의 동요도 몰랐으며 승리를 굳게 믿고 부강조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것은 고귀한 생애의 전기간 혁명의 최고리익, 인민의 권리수호를 생명으로 내세우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신념의 표대였고 그이께서 추켜드신 사회주의조국수호의 기치였다.

공화국을 감히 건드리는자들은 상대가 누구이든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는 사회주의조선의 반제혁명투쟁사에 아로새겨진 특대 사변들을 통하여 뚜렷이 과시되였다.

특히 20세기 90년대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승리는 탁월한 전략가이시고 자주정치의 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은 인류정치사의 기적이였다.

장장 반세기이상이나 전대미문의 정치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가 지속된 이 행성의 유일무이한 나라에서 백승의 전승사를 창조하시며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지켜내신 위대한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민족의 영웅, 사회주의승리의 상징으로 휘황히 빛나고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조선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이 얼마나 거대하고 귀중한것인가를 사무치게 절감하고있으며 그이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인민의 긍지와 존엄을 더욱 뜨겁게 새기고있다.

글 최광호





부모님과 함께 계시는 어린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36(1947)년 3월

1942. 2. 16.

백두산의 아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고향집(량강도 삼지연시)에서 탄생하시였다.

백두산(2 750m)의 장군봉에서 남동쪽으로 수십리 떨어진 곳에 솟아있는 정일봉의 기슭－천연수림이 우거지고 소백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골안에 백두산밀영이 자리잡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적령도거점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적극화하시면서 조국해방(1945. 8. 15.)을 위한 최후결전에 온 민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령도하시였다.

바로 이곳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실 당시는 세계적범위에서 인민들의 반파쑈해방전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조선에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주동적으로 마련되여가던 력사적인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그이께서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것은 주체조선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할 력사가 시작된 조선민족의 일대 경사였고 대통운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가정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아버님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어머님으로 모신 혁명적인 가정이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을 알려 나무에 새긴 구호의 일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그날 백두산밀영은 크나큰 환희와 기쁨으로 들끓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탄생하신 그이를 민족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어 조선혁명의 미래의 태양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두광명성이라고 칭송하였다.

백두산은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기상을 키워준 요람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과정에 어려서부터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니시였고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조숙하신 그이이시였다.

빨찌산들이 지니고있던 고결한 감정정서는 풍만한 자양분이 되여 그이의 넋속에 그대로 흘러들었고 백두산의 뫼부리처럼 억센 그들의 기질은 그이의 남아다운 성격에 피와 살을 보태주었다.

진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항일의 전장에서 민족의 열망을 한몸에 안고 백두광명성으로 찬연히 솟아오르신 백두산의 아들, 빨찌산의 아들이시다.

글 강수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외국의 벗들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49(1960)년 9월부터 주체53(1964)년 3월까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49(1960)년 9월 1일부터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력사의 그날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이끄실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완벽하게 갖추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그이께서 벌리신 사상리론활동의 령역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와 민족해방혁명으로부터 세계혁명에 이르기까지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철학, 경제학, 력사학, 정치학, 법학, 문예학, 언어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 지어 자연과학의 여러 부문들까지 포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내여갈 필생의 의지를 담아 읊으신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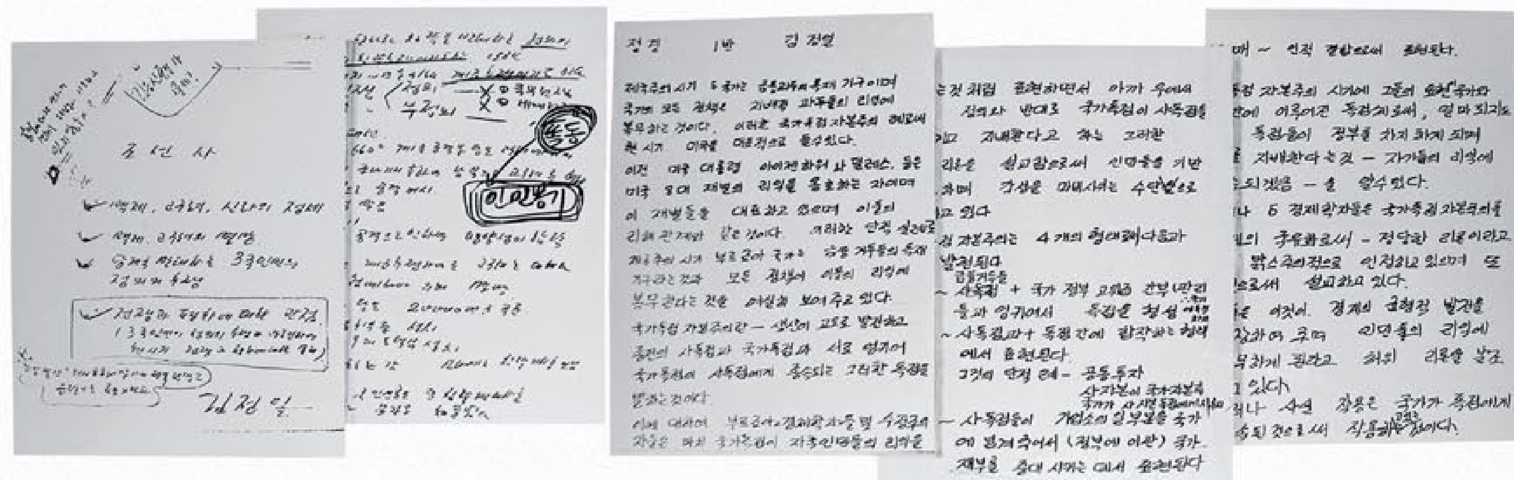
김일성종합대학에 빛나는 향도의 자욱을 옮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49(1960)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52(1963)년 2월



평양시 와산동-룡성사이의 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50(1961)년 5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리론을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본성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론문들을 집필하시였다.

대학시절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진리성을 론증하시고 혁명투쟁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과 사회혁명의 본질에 관한 문제,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리론,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본성에 대한 리론 등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천명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전변이 이룩되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 활동에 의하여 조선에서의 노예소유자국가형성문제와 부르죠아혁명문제를 비롯한 력사적사실과 사건들이 주체적이고 과학적인 립장에서 새롭게 정립되게 되였다.

그이께서 지펴주신 만페지책읽기운동의 불길속에 모든 대학생들이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인재들로 자라났다.

정치경제학교과서가 새롭게 만들어진것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의 교육내용이 현실적요구에 맞게 편성되고 교육방법이 개선되기 시작한것도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보여주신 뛰여난 예지와 령도력, 숭고한 인품, 당과 인민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탁월한 정치활동가, 영명한 지도자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였다.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에는 룡남산마루에서 다지신 맹세를 한생토록 지켜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대학시절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셔져있다.

글 김선경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

주체사상탑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3(1974)년 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류사상사에 고귀한 업적을 새기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0년대에 벌써 선행한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과학성과 심오성, 력사적지위 등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이어 1970년대전반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는 주체71(1982)년 3월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등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사상의 내용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 출중한 저술력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방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지난 세기 90년대에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하기에 세계 혁명적인민들도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20세기의 위기를 막아 인류의 운명을 구원해주신분》, 《사상의 힘으로 사회주의위업의 앞길을 밝히시고 승리를 담보해주신 령도자》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시여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3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는 조선인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는것을 사회주의위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주체45(1956)년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자취가 력력히 어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조직진행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조선에서 혁명전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시원이 열린 이때부터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전 사회적으로 혁명전통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이 확립되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가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으며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시대적요구에 맞게 이 사업을 끊임없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켜나가도록 이끄시였다.



무포숙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3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체계화하는 사업이 전당적, 전 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전국도처에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이 훌륭히 꾸려져 온 나라가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전변되게 되였다.

해마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행군이 정상화, 전통화되는 과정에 수많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소년학생들이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절감하면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자라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주체63(1974)년 3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의 혁명정신과 기백이 차넘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되였다.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에 언제나 큰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를 맞으며 또다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으시여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심화될수록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전국의 수많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찾으시여서도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원상대로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변함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이라는 사상정신적재보를 가졌기에 조선인민은 그 어떤 엄혹한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짓부시며 전진하는 억센 인민이 되여 세대를 이으며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조선혁명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글 최광호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불패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시여

사회주의조선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으로 건설하신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력사적공적이다.

일찌기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통일단결의 리론적초석을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혁명적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인 령도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된 불패의 당을 건설하고 일심단결의 새시대를 개척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력사적행로에서 당과 국가, 무력건설전반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는 유일궤도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사상적일색화가 이룩되는 장엄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온 사회가 하나의 목적, 하나의 의지, 하나의 발걸음으로 투쟁해나가는 일심단결의 나라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처음으로 력사에 출현하고 그 훌륭한 모습과 무궁무진한 위력이 높이 떨쳐지게 된것이다.

믿음과 사랑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자, 위대한 장군님의 이 정치신조는 령도자와 인민대중을 영원히 가를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이어지게 한 피줄기와 같았다.

인민을 옹호하고 받드는것을 가장 정의로운 위업으로, 인민이 바라는것을 혁명의 요구로, 인민이 좋아하는것을 최대의 락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실 열망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2(1983)년 9월

그이의 혁명사상은 근로하는 인민을 하늘로 떠받들고 그들의 삶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강령이였고 당과 국가사업에 대한 그이의 령도는 당과 국가를 진정한 어머니당,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건설하는 과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만대적을 쥐락펴락하시며 력사의 흐름을 주도해오신 강철의 령장이시였지만 인민의 아픔을 두고서는 마음속괴로움과 남모르는 눈물도 많으신 뜨거운 인간이시였으며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한평생 오로지 인민밖에 모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

기에 조선인민은 일편단심 장군님 한분밖에 몰랐으며 그이와 함께라면 고난도 시련도 영광으로 여기고 그이의 구상이라면 산악같이 떨쳐나 자랑찬 현실로 펼쳐놓았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하나로 융합되여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조선의 일심단결이 마련되게 되였다.

억만금의 재부와 그 어떤 힘으로도 결코 얻을수 없고 당해낼수 없는것이 민심이고 단결이다.

천만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사회주의조선은 그토록 엄혹한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가장 공고한 정치적안정을 이룩하고 언제나 승리하며 마음먹은대로 실천해나가는 세계의 유일무이한 나라,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다.

주체의 넋으로 강대하고 사랑과 정으로 불패하는 일심단결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강국의 불가항력을 안겨주신 민족의 어버이, 희세의 위인으로 영생하신다.

글 박의철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넘겨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10월

주체적문학예술의 부흥기를 열어주시여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맞는 조선인민은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에 대해서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문학예술발전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주체문학론》과 《영화예술론》, 《가극예술에 대하여》와 《연극예술에 대하여》, 《음악예술론》, 《미술론》, 《무용예술론》, 《교예론》을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자주시대의 문학예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총서이다.

그리고 이에 토대하여 《피바다》식혁명가극과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며 문학, 영화,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는 명작들이 수많이 창조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4.15문학창작단, 피바다가극단, 만수대예술단, 보천보전자악단 등 문학예술기관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조직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을 뜨거운 동지적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내세워주시여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을 떠밀고나갈 힘있는 력량으로 키우시였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작가, 예술인들의 일터를 자주 찾으시며 사업과 생활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새로운 창조와 혁신에로 고무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조선의 문학예술은 년대와 세기를 넘으며 시대와 대중을 선도하는 자기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올수 있었다.

혁명적문학예술창조의 본보기단위로 되여 온 나라 인민을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는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의 공연과 **김일성**상계관작품들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경희극 《산울림》 등은 오늘도 문학예술부문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해가고있다.

글 강수정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촬영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3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창조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1(1972)년 10월



만수대예술단의 예술창조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영화혁명이 일어난데 이어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주체건축의 개화기를 펼치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건축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날이 갈수록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조선인민이다.

주체의 건축사상은 혁명적인 수령관을 근본초석으로 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건축창조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해명하고 정립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건축사상이라고 밝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도의 중심부에서 가장 높은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그 주변에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보여주는 대군상의 기발탑들과 조선혁명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수도 평양에 인민대학습당, 주체사상탑과 개선문과 같은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일떠세우시였다.

모든 건축물들을 그 창조자이며 향유자인 인민들에게 편리하며 아담하고 아름답고 든든하게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을 건축창조의 총적목표로 제시하시고 시대의 요구를 구현한 훌륭한 건축물들이 태여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1980년대에만도 평양시에 창광거리와 문수거리, 광복거리 등이 일떠서고 **김일성**경기장, 창광원, 빙상관, 인민대학습당, 5월1일경기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교예극장, 만경대유희장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이 솟아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주체건축의 전성기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더욱 개화발전되고있다.

글 박병훈



주체사상탑모형사판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9(1980)년 5월

인민대학습당모형사판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12월



모란봉경기장개건확장공사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1(1982)년 2월



인민대학습당



15만석의 수용능력을 가진 5월1일경기장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아 일떠선 서해갑문



개선문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현지지도하신 단위수는 연 1만 4 290여개, 로정거리는 167만 4 610여리 그중 렬차를 리용하여 현지지도하신 회수는 1 567회, 로정거리는 83만 5 000여리에 달한다.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2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7(2008)년 12월

사회주의강국의 리상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오늘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사무치게 새겨지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이다.

자립경제는 사회주의국가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담보이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자립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과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부강조국건설의 믿음직한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이끄시였다.

하여 1990년대의 엄혹했던 나날에 안변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이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과 그 구현인 강계정신이 시대의 정신으로 나래치게 되였다.

주체87(1998)년 3월 어느날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강의 로동계급이 다시한번 천리마를 타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앞장에서 들고나갈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철광석생산으로 들끓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6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이겨내고 경제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인민의 총공격전에 새로운 비약의 힘을 더해준 성강의 봉화는 이렇게 타오르게 되였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조선은 인공지구위성까지 쏴올려 세인을 놀래웠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경제형편과 전반적경제발전에서 매개 부문과 단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경제발전을 위한 방략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여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선군정치방식으로 부강조국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 세기초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로 온 나라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대고조의 열풍속에 이 땅에서는 눈부신 기적들이 련이어 이룩되고 비약의 열풍이 일어번졌다.

보다 악랄해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국가경제의 자립성이 비상히 강화되여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이 쏟아지고 새 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 전국도처에 시대적요구에 맞는 공장들이 일떠선 경이적인 사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농경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고 도처에로 자연흐름식물길이 뻗어갔으며 간석지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국토가 넓어졌다.

새로운 인민소비품생산기지들과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된 축산기지들, 과일생산기지들과 양어기지들이 솟아나고 많은 도시와 농촌들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일떠섰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의 기틀이 마련되고 나라의 국력은 전반적인 상승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찾으시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타번지게 하시려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대건설장들을 찾고 또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이 있었기에 자립경제건설의 튼튼한 밑천이 마련될수 있었다.

이 땅우에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아래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힘찬 전진과 더불어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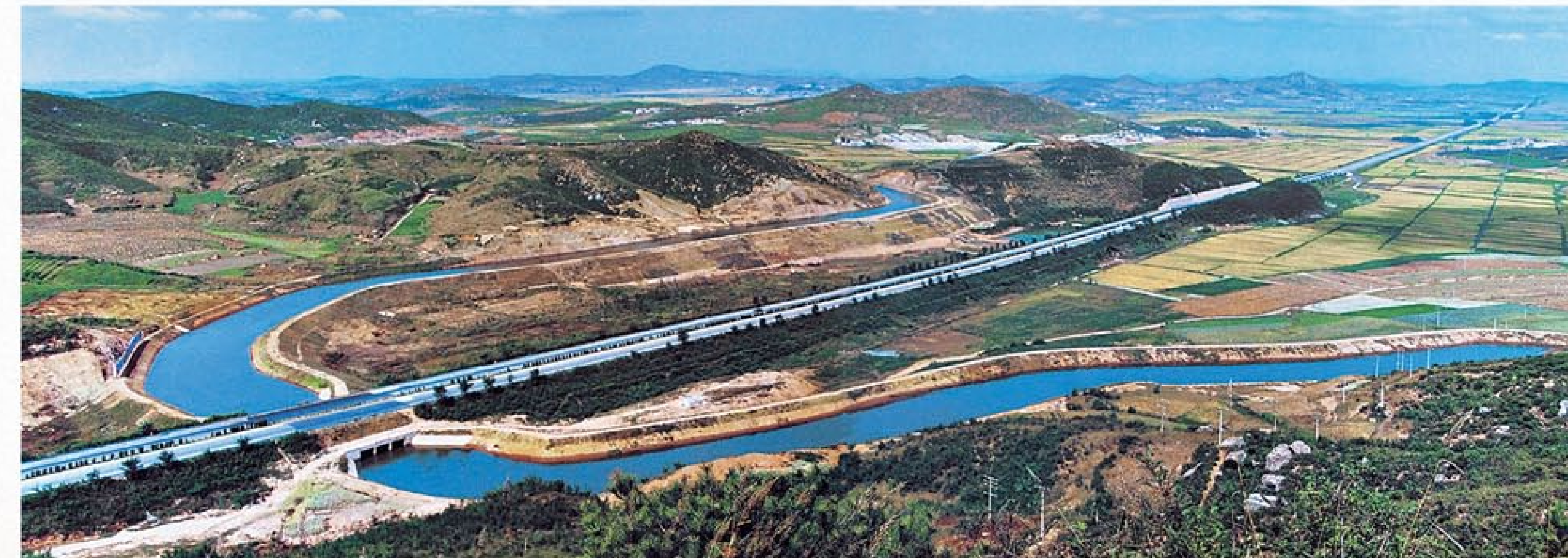
글 강수정



새형의 CNC공작기계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12월



강원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년 3월



나라의 곳곳에 자연흐름식물길들이 생겨나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자강도에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월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7월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3(2004)년 9월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9월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감자작황을 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1(2002)년 10월



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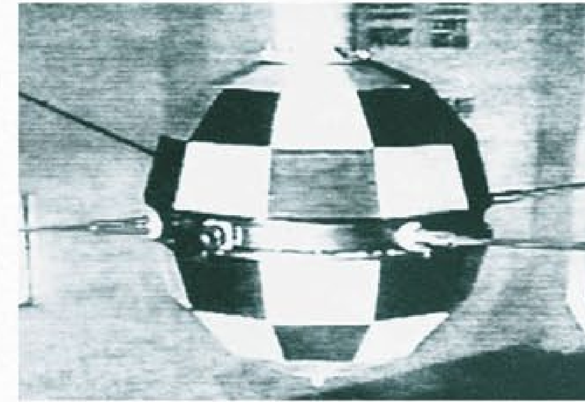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1월

룡양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0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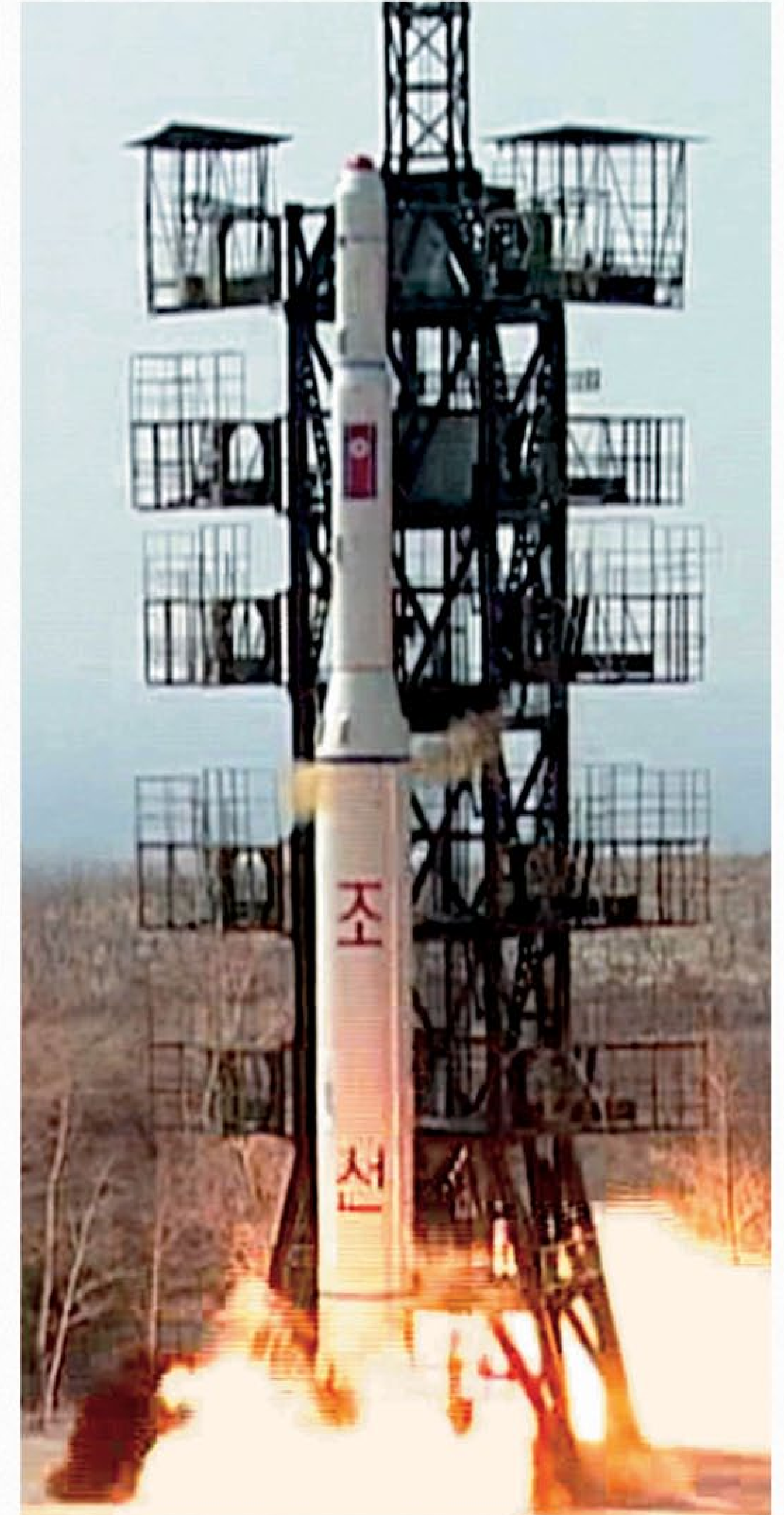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발사

주체87(1998)년 8월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주체98(2009)년 4월 또다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여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 발사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넘쳐흐르고있다.

인류정치사에 처음으로 참다운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신 어버이수령님과 꼭같으신 태양의 풍모를 지니시고 한평생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온 나라 인민들을 따뜻이 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조직령도하신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이시였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선생으로 여기신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를 령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늘 인민들을 찾아가시여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주는데서 보람을 찾으시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던 그이의 현지지도길은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길이였다.

특히 가장 준엄했던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 견인불발의 의지를 안으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지혜산, 1211고지와 판문점…

위대한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고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주는것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새로 솟아난 대중봉사기지들을 찾으시고 새 제품을 보아주시여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부터 물어주시고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좋은것을 보시면 인민들생각부터 먼저 하신 그이이시였다.

한없이 겸허하고 소탈하신 품성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신 그이이시였다.

주체64(1975)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검덕광산(당시)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이때 그이의 옷차림새는 너무도 수수하였다.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7월



녀성로동자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1월



김일성종합대학 로교수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4월

수행일군들은 그이께서 입고계신 옷이 구김살도 잡히고 줄어들어 다른 옷을 갈아입고 가실것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일하러 가는 사람이 옷이나 쭉 빼입고가선 뭘하겠는가, 로동계급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가야 인차 그들과 친숙해질게 아닌가고 하시며 입고계시던 비날론혼방직옷을 그대로 입고 광부들이 쓰는 싸리안전모를 쓰시고 깊은 지하막장까지 찾아가시였다.

자신께서는 늘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줴기밥을 달게 드시면서도 인민들에게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그리도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한없는 인정미를 지니시고 눈물도 많으신 그이께서는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쓰는 어머니처럼 마음속상처를 안고있는 사람이라면 더 정을 기울여 따뜻이 돌봐주고 삶을 꽃피워주시였다.

하기에 이 나라 인민모두가 그이를 만나뵈오면 마음속고백도, 잊을번 한 잘못까지도 스스럼없이 아뢰였다.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나라의 북부 량강도 대홍단군의 한 신혼부부의 가정을 찾으

시여 그들의 생활을 살뜰히 보살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오늘도 정녕 잊지 못하는 조선인민이다.

그날 세간난 자식의 집을 찾은 친정아버지의 모습그대로이신 어버이장군님께 제대군인의 안해는 어려움도 부끄러움도 다 잊고 새로 태여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실것을 무랍없이 아뢰였다.

평범한 녀성농장원이 부모자식간에나 있을수 있는 그런 청을 위대한 장군님께 스스럼없이 드리는 그날의 모습은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맺어진 혈연의 정, 장군님과 한식솔을 이룬 온 나라 대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모시고 누려온 사랑과 행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것인가를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맑은 날, 좋은 길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 차디찬 눈비를 다 맞으시며 헌신의 장정을 가고 가신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을 위한 고생은 그대로 락이였고 삶의 보람이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줴기밥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리상적인 도중식사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며, 야전승용차의 발동기소리와 렬차의 덜커덩거리는 소리는 자신의 자장가이고 잠동무라고 하시며 인민위한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이런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나도 최고사령관이기 전에 인간이며 그 누구보다 생활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기때문에 개인적인 모든것을 희생하면서 쉬임없이 인민들을 위한 혁명의 길을 걸어나가고있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있다. …

한평생 그렇듯 열렬히 인민을 사랑하시였기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진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은 한 나라의 령도자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소중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고스란히 다 바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생애였다.

하기에 뜻깊은 2월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려는 충성의 마음을 더욱 굳게 가다듬는 조선인민이다.

글 강수정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줄 선물옷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1(1992)년 4월



새집들이한 제대군인신혼부부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1월



서흥군 범안협동농장 농장원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7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뜻깊은 2월과 더불어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고있는 조선인민이다.

인류력사에는 이름있는 군사가,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과 같이 탁월하고 독창적인 군건설사상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불패의 혁명무력을 키워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친 령장은 있어본적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와 더불어 지나온 공화국의 력사는 조선인민군이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되고 나라의 군력이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라섬으로써 사회주의수호전과 부강조국건설에서도 기적적인 승리를 이룩한 년대들로 빛나고있다.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 등 공화국을 목표로 한 제국주의세력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새해의 첫아침에 다박솔중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1월

그러나 조선인민군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울수 있는 전투대오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가 있어 적대세력의 무모한 책동은 그때마다 여지없이 분쇄되였다.

특히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사회주의 조선이 그처럼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부강조국건설의 대통로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선군!

이 한마디의 말속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켜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함축되여있다.

전대미문의 시련을 이겨내는 길도 선군에 있고 강국의 기둥을 세우고 대비약의 전성기를 열어놓는 길도 선군에 있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그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도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부흥의 새봄을 기어이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령장의 철석의 의지가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선군혁명령도의 로정들마다에 새겨졌다.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다닌적이 있는가고 하시며 인민군군인들을 찾아 섬초소에로의 풍랑세찬 항해길에도 오르시였고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군사분계선의 판문점초소에도 서슴없이 나서신 그이이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을 찾아 굽이굽이 높고 험한 령들을 넘고 넘으시고 내려지치는 야전차를 밀며 위험천만한 칼벼랑길을 이어가신 그이의 강행군길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길이였다.

철령과 오성산을 비롯한 조선의 산악들은 오늘도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증견자로 높이 솟아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시던 나날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다가 문득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솜옷에 대하여 이야기하신적이 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솜옷을 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입었는데 준엄하였던 력사를 잊을수가 없어 아직까지 벗지 않고있다고, 이 솜옷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전방지휘소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6(1997)년 4월

조선인민군 공군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7(2008)년 12월



비행구분대를 찾으시여 길영조영웅이 리용하던 학습장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5(1996)년 2월

10여년나마 입으시여 얇아질대로 얇아진 야전솜옷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도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 군인들에게 일당백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병사들을 자신의 아들딸들이라고 불러주시며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병실이며 취사장, 세목장이며 일일창고, 부업밭까지 하나하나 돌아보시고 친히 음식맛까지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최전연초소로부터 머나먼 산중초소, 륙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섬초소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꽃펴났다.



조선인민군 해군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5(1996)년 11월



철령마루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인민군병사를 만나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5(1996)년 3월



판문점을 찾으시여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초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5(1996)년 11월



조선인민군 해군군부대를 찾으시여 무기를 수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6(1997)년 6월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는 철석의 신조를 지니시고 육친의 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그이의 선군장정과 더불어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사이의 혼연일체가 더욱 굳건해지고 인민군대가 혁명적동지애로 뭉친 무적의 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기 위해, 장병들모두를 펄펄 나는 싸움군, 일당백의 용사들로 준비시키시려 눈비속을 기꺼이 헤치시고 높고 험한 령도 쉬임없이 넘으시며 천리방선초소들에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을 조선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열화같은 애국, 애족, 애민으로 빛나는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하기에 전체 조선인민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일념으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글 박병훈



훈련에서 성과를 거둔 군인들을 축하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12월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셨습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고생을 더없는 행복으로, 락으로 여기시며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인민을 찾아 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인민사랑의 숭고한 력사를 펼쳐가시였다.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공장과 기업소, 건설장들 그리고 조국방선초소들과 평범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비롯한 이 땅 그 어디에나 잊지 못할 현지지도의 자욱을 함께 새겨가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였다.

룡연바다가양어사업소와 룡정양어장, 만수대창작사, 중앙동물원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중앙양묘장, 하나음악정보쎈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

정녕 인민을 위한 위대한 사랑의 그 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뜻과 정을 나누시고 심중의 생각을 터놓으시며 커다란 기쁨과 만족, 기대와 믿음, 신심과 락관에 넘쳐계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현지지도의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모습을 뵈올때마다 더없는 행복과 영광에 휩싸였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느끼군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를 이어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먼길을 위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주체혁명의 향도자로 내세우시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사회주의조국과 사랑하는 인민의 장래를 맡기시였다.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9월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12월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3월

위대한 어버이를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슬픔에 몸부림치던 12월의 그날부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념원, 애국념원을 반드시 풀어드릴 굳은 맹세를 안으시고 천만인민을 품에 안으시였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발자취가 새겨지는 모든 곳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뵈웠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아래 곳곳에 일떠서는 경이적인 창조물들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소원이 풀리는 격동적인 현실을 체험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념원하신 사회주의강국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의하여 반드시 일떠서게 된다는 것이 지나온 나날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억척의 신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로고와 심혈을 바쳐 지키고 가꾸어오신 조국강산에 그이께서 그토록 념원하신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이 땅에서는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글 박의철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10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10월

인민군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11월



인민군군부대를 찾으시여 군인들의 후방사업정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10월



열병대오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99(2010)년 10월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사회단체, 저명한 인사들은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4만여점의 진귀한 선물들을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고매한 풍모로 하여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를 받으시였다.

세계 170여개 나라의 당, 국가 및 정부수반들, 각계층 인사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어린 선물들을 드리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은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자개박이옻칠벽걸이, 대형량면수예 《보춘도》, 제직화 《송령학수》, 옻칠병풍 《청명상하도》 등을 선물로 드리였으며 로씨야의 국가수반들은 사회주의조선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정치가에 대한 경모심을 유명한 오를로브원종말들과 사냥총, 단검 등 지성어린 선물들에 담았다.

그리고 꾸바의 국가지도자들은 악어가죽가방, 자동보총, 대리석탁상등, 인두화 《몬까다병영습격》을 그이께 선물로 드리였다.

또한 쁠럭불가담운동창시자의 한사람인 전 유고슬라비아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전 라오스국가주석 쭘말리 싸이냐쏜, 중앙아프리카대통령이였던 앙드레 꼴링바, 또고대통령이였던 그나씽그베 에야데마 등도 그이에 대한 찬탄과 경모의 정을 선물들에 담았다.

캄보쟈의 대왕이였던 노로돔 시하누크는 정의의 위업에 사심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처음으로 두 나라 기발이 새겨진 금속공예품 등을 드렸던 주체62(1973)년부터 모두 70여점에 달하는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실천가,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칭송한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리사장 쟝까를로 엘리아 발로리를 비롯하여 세계 수많은 인사들이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을 성의껏 마련하여 드린 선물들에 담았다.

세계의 평화와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고귀한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해드린 훈장과 메달은 180여개에 달한다.

세네갈과 라오스, 팔레스티나와 에짚트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 드린 최고훈장들에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자신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세계자주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어려있다.

꾸바의 련대성훈장, 이전 쏘련의 쓰딸린훈장, 칼 맑스은메달 등도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을 전하고있다.

여러 나라 국가수반 및 당수들과 정당들 그리고 세계의 권위있는 과학원, 대학, 국제기구, 단체들, 많은 도시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 연 210여차에 달하는 명예칭호를 수여하였다.

네팔왕국 까뜨만두시리사회를 비롯하여 세계의 이름있는 도시와 대학,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그이를 명예시민과 명예원사, 명예교수와 명예박사, 명예위원장, 명예지도자로 추대하였다.

오늘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심은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글 김선경





대형량면수예 《보춘도》
강택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드린 선물
주체89(2000)년 5월



은꽃병
웨. 웨.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드린 선물
주체96(2007)년 2월



대리석그릇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쟈왕국
국왕이 드린 선물
주체95(2006)년 4월



도자기주전자
잠빈 바뜨멍흐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몽골인민공화국
대인민후랄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드린 선물
주체76(1987)년 2월



은차그릇
케이. 아르. 나라야난
인디아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선물
주체90(2001)년 9월



악어가죽가방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 드린 선물
주체86(1997)년 2월

나비날개공예 《태양》
앙드레 끌링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민족재건군사위원회
위원장, 국가수반이 드린 선물
주체72(1983)년 5월





은다반, 은고뿌, 은고뿌받치개
하페즈 알 아싸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선물
주체83(1994)년 12월



천연수정, 유리구
디디에 라찌라까
마다가스까르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선물
주체79(1990)년 10월



탁상시계
레비 패트리크 므와나와싸
잠비아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선물
주체96(2007)년 10월

명주꽃병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선물
주체97(2008)년 2월



나무귀중품함
쌀민 아모우르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잔지바르
대통령이 드린 선물
주체85(1996)년 11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 기업체들과 도시, 대학, 과학연구기관, 지역 및 국제기구, 유엔전문기관들에서 400여건의 훈장, 메달과 상장, 명예칭호들을 드리였다




RÉPUBLIQUE CENTRAFRICAINE

ORDRE DU MÉRITE CENTRAFRICAIN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중앙아프리카
대십자공로훈장과 증서
주체72(1983)년 7월




República de Cuba

CONSEJO DE ESTADO




KRET

꾸바
련대성훈장과 증서
주체81(1992)년 1월

캄보쟈
민족독립대목걸이훈장과 칙령
주체93(2004)년 5월





몽골
친선의 금별훈장과 증서
주체96(2007)년 2월




ДИПЛОМ

로씨야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훈장과 증서
주체99(2010)년 2월



뽀르뚜갈
쎄뚜발시메달
주체71(1982)년 4월



프랑스
국제관계발전을 위한 연구소
기념메달
주체82(1993)년 3월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련맹
창립 기념메달
주체83(1994)년 11월



로씨야
《1994년 명인》 메달과 증서
주체83(1994)년 12월





벌가리아
반파쑈동맹메달과 상장
주체91(2002)년 2월



네팔
2009년 평화상 상장
주체99(2010)년 1월

세기를 이어 전하는 칭송의 목소리



주체87(1998)년 7월 조선을 방문한 전 쏘련국방상 원수 드미뜨리 야조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나뵈옵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와 근 5시간동안이나 담화를 나누시였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군사에 대한것이였다.

어느 한 군종이나 병종이 아니라 륙해공군의 모든 병종에 대하여, 현대군사과학의 모든 최첨단기술과 장비에 대하여 완전무결하게 파악하고계실뿐아니라 현대전의 모든 전략전술과 세부적인 전투조법에 이르기까지 군사의 모든 분야를 환히 꿰들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야조브는 완전히 매혹되였다.

그는 너무도 감동되여 위대한 장군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는 정치의 대가이실뿐 아니라 군사에서도 특출한 대가이십니다.

나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명망높은 군사가의 심장속에서 우러나온 진심의 목소리였다.

야조브는 그후 자기의 회상담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이렇게 칭송하였다.

《**김정일**동지, 그분은 한마디로 군사에서도 이 세상의 진짜 〈하느님〉이시다.》

《**김정일**동지처럼 정치적령수로서의 풍모를 완벽하게 갖추고있으면서도 령장으로서의 자질까지 겸비하여 문무에 정통한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전 쏘련국방상 원수 데. 떼. 야조브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각하에 대한 존경과 경모의 정을 담아 삼가 올립니다.

저는 각하의 탄생 46돐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일본과 조선의 우호와 친선을 념원하여 제가 진심을 담아 육종한 알뿌리베고니아를 보내올리는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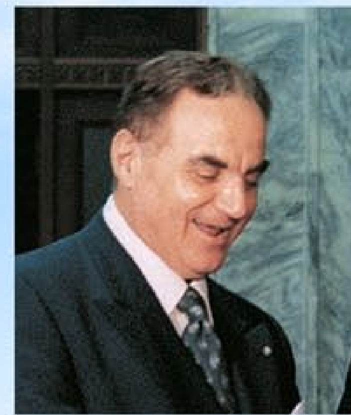
…저의 미숙한 식물에 위대하신 각하의 존함을 모시는것은 참으로 황송합니다만 각하의 만년장수를 축원하며 휘황한 미래의 륭성발전을 념원하는 심정을 담아 감히 **김정일**화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이 식물을 각하께 증정하는것을 허락하신다면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됩니다.

김정일각하의 만년장수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988년 2월 13일》

일본의 원예가 가모 모도데루



《…정녕 그분은 신비한 두뇌와 담력, 태양의 인덕과 함께 세상 그 어느 위인도 겸비하지 못했던 도덕의리를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인중의 대위인이시다.》

《**김정일**각하의 인정의 세계는 따사로운 해빛이 되여 나의 마음속에 비껴있던 한점의 그늘까지도 말끔히 가셔주었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가 누구이든 끝까지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분이 **김정일**각하이시였다.》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



비슈와나스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 대하여 이렇게 격찬하였다.

《세계정치계의 수많은 인사들은 이 저서를 〈20세기 자주적인류의 위대한 선언〉으로, 하늘이 내린 〈인류미래의 안내서〉라고 생각한다.

김정일령도자는 이 저서 하나만으로도 인류사상의 맨 정점에 올라서신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현시대의 정신적지도자로 공인되여야 할것이다.》

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



《우리는 **김정일**동지와 같으신 세계적인 수령이 계신다는것을 긍지로 여기고있다.》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김정일**동지를 신적존재로 높이 숭배한다는것을 주저없이 말하게 된다.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김일성**식사회주의를 따라배워야 할것이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위원장
에쓰. 제. 우말라또바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 진행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검열사격훈련이 주체111(2022)년 1월 14일 진행되였다.

련대는 총참모부로부터 불의에 화력임무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적된 발사지점으로 기동하여 2발의 전술유도탄으로 조선동해상의 설정목표를 명중타격하였다.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 진행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주체111(2022)년 1월 17일 전술유도탄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되였다.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 있는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조선의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은 조선동해상의 섬목표를 정밀타격하였다.

국방과학원은 생산되는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효과성을 확인하였다.

국방과학원 중요무기시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지난 1월 25일과 27일 중요무기시험들을 각각 진행하였다.

1월 25일 장거리순항미싸일체계갱신을 위한 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

발사된 2발의 장거리순항미싸일들은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9 137s를 비행하여 1 800㎞계선의 목표섬을 명중하였다.

실용적인 전투적성능을 갖춘 장거리순항미싸일체계는 나라의 전쟁억제력강화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맡게 된다.

1월 27일 지상대지상전술유도탄 상용전투부위력확증을 위한 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들은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으며 상용전투부의 폭발위력이 설계상요구에 만족된다는것이 확증되였다.

국방과학원은 산하 미싸일전투부연구소가 앞으로도 계속 각이한 전투적기능과 사명을 수행하는 위력한 전투부들을 개발할것이라고 밝혔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 진행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되였다.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있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 《화성-12》형을 선택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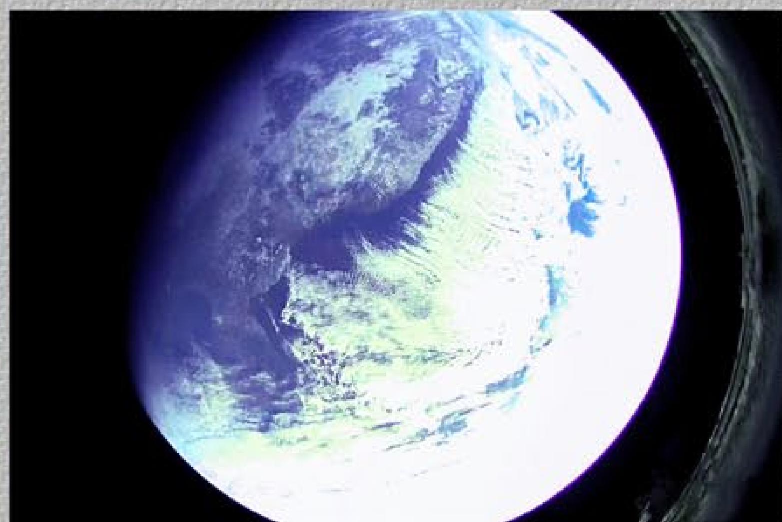
국방과학원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선의 서북부지구에서 조선동해상으로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사격시험을 진행하였다.

국방과학원은 미싸일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화상자료를 공개하였다.

국방과학원은 생산되는 《화성-12》형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효과성을 확인하였다.







13606-228016



낸곳: © 조선화보사 2022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